

UNIVERSITY OF HAWAII
 Lee Lipyoung Yang Chubo

ESTABLISHED LIBRARY
 NOV 23 1966

태평양 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 회중앙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1
발행소	931 노스.킹.스트리트 오호루푸.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리정근	President	Chung Keun LEE
주필	김창원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Phone	850-849
발행호수	1616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구월 29일 금요일	Number	1616
		Date	Nov. 11, 1966: Fri.

하와이주 본선거의 결과

대접전후 번스 현지사가 간신히 승리

쿠로스리 씨와의 차 四천七백=十票

하와이주 본선거는 지난 11월8일에 전도에서 거행되었는데, 일기도 회복되어, 투표자의 수도 대단히 많고 (등록자의 약 91%) 활기에 가득 찼었다. 가장 주목된것은 지사, 부지사의 선거로, 예상전에도 대접전으로, 투표결과번스의 전반은 서로 이기고 지는 경쟁을 계속하여 누가 승리하나, 일반에게 큰 흥분을 주었는데, 후반에는 번스.현 지사와 호.마스.김 씨가 공화당의 팬들.크로스리 와 조.지.민 씨를 놓고, 점점 그의 차를 크게 하고, 4,720 표의 차.간신히 승리하였다. 미국회의원선거에서는 현직의 팻씨.밍크, 스마.크.마스나가 양의원이 공화당의 존.캐를, 제임스.게아로하 양후보를 압도적으로 높리고 재선하였다. 하와이의 각 군참사 선거에서는, 하와이군에서는 손이찌.기무라씨, 마우이군에서는 에디.렘씨의 양면직이 재선되었고, 가와이섬에서는 앤.부메나씨 (민주당)이 하.드워.부레이크 현참사장을 큰차로 높리고 승리하였다. 주하원의 의석은, 민주당이 한자리를 일로 39, 공화당이 12의석을 차지하였다. 주상원선거에서도 공화당이 한자리를 더 차지하여, 민주당이 15석, 공화당이 10의 지배율로 되었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수

주지사와 부지사			
존.번스 와 호.마스.김	109,024 표	팬들.크로스리 와 조.지.민	104,304
미국의 의하원의원			
팻씨.밍크 (민주당)	138,233 표	조.지.캐를 (공화당)	66,184 표
스마.크.마스나가 (민주당)	137,418 표	제임스.게아로하 (공화당)	61,621 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

(회신은 10일밤, 에이 피) 존슨정권 2년간의 실적을 표시하는 미중간선거는 하원의원 전원 435인, 상원 35인, 35주의 지사 기타 지방자치체의 직위를 싸고, 8일 전국일체히 후보를 하였다. 동일 밤으로부터 9일에 걸쳐서 개표한 결과, 공화당이 중간선거에 큰 힘을 발휘하였다. 확정된 당선자는, 하원에서 민주당 248, 공화당이 187로, 전의회의 세력, 민주당 294, 공화당 139 에 비교하면, 공화당이 48의석을 증가한것이다. 상원에 있어서의 공화당의 증가는 3의석으로, 여태까지의 세력 민주당 67, 공화당 33 이 민주당 64, 공화당 36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주지사 선거 저에서

그러나, 주지사선거에서는 개선 35주 (이중, 민주당 30주, 공화당 15주) 중, 공화당은 2주에서 민주당에게 여태까지의 지사의 자리를 빼앗겼으나, 반대로 10주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지사의 자리를 빼서, 8명이 증가하였다. 주지사의 정당별 수는 아직까지 판명된것으로보면, 공화당이 25주, 민주당이 24주도 되어있다. (제2면에 계속)

(제1면으로부터 계속)

공화당의 승리는 민주당이 현재 확보하고있는 상,하 양원의 지배를 위협하도록 위협한것은 아니나 특히 하원의 선거권의 예상이상으로 득선을 보았고, 이것은 니슨전부대통령이 예언한 하원 40 의석증가보다도 더 조른 성적을 나타낸것으로, 존슨정권과 민주당에게 대한 타격이 크다.

이러한 형세에 이르는 원인에대해서는, 대통령의 힘을 약하게하는 전통적인 중간선거의 료의 움직임에 가해서, 최근의 세론조사에 있어서의 존슨지지율의 저하로 상징되고있다싶이, 비에트남 전쟁문제에 있어서의 정돈상태, 인후메이슨에 대한 대책의 결집, 이와같은 존슨 시정에 대한 국민의 강한 불만, 초조감이 반영한것으로 보인다. 상원공화당에 핫스프리트, 팻시, 부룩스스 등 비에트남전쟁에 비판적인 사람이 등장한것, 하원의 공화당 신의석이 거의 다 니슨 토션의 전쟁강화의 강경파들로 차지된것등은, 모두가 현재의 이러한 국민감정을 단적으로 나타내고있다. 이에대해서, 민주당은 선거결과를 패복으로는 인정치안코, 금후의 존슨정권의 내외모션에는 영향이 없다코하는 태도를 취하고있다. 존슨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하원에서의 40 내지 50 의석의 상실은 큰 영향을 주지안는다" 라고 언명하고있다. 외교면에서는, 확실히 일부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큰쟁점이 되지안은 정이며, 당면의 영향, 변화는 예상되지안는다.

내정면에서 치연 가능

그러나, 내정면에서 과거 2년간, 존슨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건설을 지지하여온 하원의 자유파의 다수를 일케되기때문에, 존슨정권의 손해는 클것으로 보인다.

금후, 여태까지 조용하던 남부보수와와 공화당보수의 연합작전에 의한 "위대한 사회"법안에의 저항강화가 예상되며, 존슨대통령은 2년후의 대통령선거를 마지하여, 여태까지에 업든 시련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또 지사선에서, 제일 큰 캐리월니아 주가 공화당 보수파 리-켄 후보의 손에 떠러진것을 위시하여, 공화당이 뉴욕, 펜실베니아, 미시간, 매사추세츠, 오하이오 등 대주를 획득한것은 68년도의 대통령선거를 생각하면, 의미심중한 문제로, 공화당은 "이것으로 존슨대통령의 낙선의 기반이 잡혔다" 라고 믿고있다.

위대한 사회에 제약

자유무역은 후퇴를 예상

(작성은 10일밤, 공중) 중간선거의 결과, 상원에서는 소위 자유파의 세력은 특히 법화가 업섯으나,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진출로 보수세력이 강화되었다. 이때문에 존슨대통령의 "위대한 사회"의 내정시책은 만흔 제약을 받게 될것이며, 내년에는 경제확대가 약해질것도 예상되고, 케네디정권 이래의 야심적 자유무역정책은 후퇴할것이다. 존슨대통령은 수술회복후, 년만에 걸쳐서, 예산, 중세등 경제정책의 분야에서 일련의 결정을 내리지안으면안된다. 이 초점이 되는 것은, 비에트남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결쟁비용을 위한 중세문제이다. 지금, 존슨대통령은 중세 문제를 어더제하든지 피하려고하고있다. 전쟁비용이 너무 증가되어, 중세가 불가피한경우에는 단기간의 중세 (반년 내지 1년) 로 끄칠것이다.

총상정책에서는 내년은 자유무역주의의 후퇴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전기를 볼 예상이다. 이것은 1. 명년에는 국내경기의 상승이 내리고, 국내산업, 특히 철강, 섬유산업등으로부터, 수입제한 요구가 높아질 가능성이 만라. 2. 하원에서의 보수세력강화에 의한 의회가 보호적 입법의 움직임을 강하게하는 가능성이 크다. 3. 관세 일괄 인하하고성이 명년봄에는 결착이 나기때문에 미국정부도 경제제도 완성을 쉬게 되는데, 도리혀 이 반동이 나올것이다. 동이 이유이다.

내정면에서는 위대한 사회, 미국사회에 적용한 부사국가의 정책이 금후 하원에서 정지되며, 새로운 입법이 곤란해 지며, 기정제해도 예산확가 어렵게 될것을 모두가 인정하고있다. 그러나 존슨대통령으로서, 위대한 사회 계획을 정지하지안코, 속도는 느저지드라도 의도보장의 확대, 빈곤과의 싸움,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등을 진전시키도록 의회에 공작할것이다.

(제3면에 계속)

(제2편으로부터 계속)

또 하원의 보수파로서 주택차별폐지나, 의식은 특별지구 자치등의 인종차별폐지 입법은 일반적으로 곤란하게 되기때문에, 육인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든지도 큰 문제이다.

소련 비에트뎀 화평에 적극화. 영국 의상을 초청

(론돈 10일밤, 공중) 부라운영국 의상은 11월22, 23일의 양일 비공식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하기로 되었다. 동 의상은 내년 1월에 소련을 공식방문할 예정인데, 그전에 급히 소련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서, 론돈에서는 특히 비에트뎀문제와 연결시켜, 여러가지 억측이 있다. 이 방문에대해서 특히 주목되는것은, 영국과의 접촉에 대해서 소련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내년 1월의 부라운 의상의 공식방문을 기다리지 않고, 조금의 회답을 요구하여왔다고 전해지고있다. 부라운, 구롬미5 양국 의상은 10월에 뉴욕에서 두번에 걸쳐 회답을 하고있으며, 그대 구롬미로 의상은 비에트뎀 문제에 대해서, 여태까지에 보이지 않은 유언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진다.

멕시코 국방장관 대통령과 회견

(멕시코주. 새 안오리오 10일밤, 에이 피) 멕시코국방장관은 10일 아침, 토이타총관장본부의장을 등반하고 의식을 출발, 멕시코주의 특장에서 정양중의 존슨대통령을 방문, 회답하였다. 멕시코당국은 "회답은 거의 종일 계속될것이다. 회답에서는 군사문제가 검토될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회답의 구체적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히 하지안했다. 그러나 소식통은 회답에서는 군사예산문제가 크게 취급될것으로 보인다. 멕시코국방장관은 5일에도 존슨대통령을 방문하고 회답하고있는데, 5일의 회답후에 등장관은 "내년도에는 비에트뎀 파병의 속도가 느리지기때문에 징병수가 삭감될것이다" 라고 언명하였다. 또 존슨대통령은 9일, 와우라 재무장관, 슈투스 예산국장, 가리파노 특별보좌관의 방문을 받고 회답하였다.

한국정부 비에트뎀에 증파 안는다

(워싱턴 10일밤, 에이 피) 워싱턴의 한국외교당국자는 9일, 한국이 현재이상으로 비에트뎀에 군대를 증파하지안을것을 명백히 하고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존슨대통령은 마닐라회의에서 비에트뎀전쟁에 참가하고있는 연합군이 더 병력을 증강하여야안한다고 시사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을 지명한것이라고 생각치는 안는다. 한국정부가 비에트뎀에 현재이상으로 군대를 증파하지안는다고해서,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나쁘게 되지는 안는다. 또 한국은 현재 비에트뎀 주류 군대를 4만5천명이나 파견하고있으며, 그 수는 미국 다음인 최대한것이다.

한국서 또 학생운동

서울대학 총장의 사임을 요구

(서울 7일밤, 공중) 작년8월의 한일비존반대운동에서 철저한 탄압을 받고, 그후 조용하던 한국의 학생운동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 하였다. 직접의 원인은 전의 삼성재벌의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학교내에서 무허가의 집단대회를 강행한 서울대학문리학부, 법학부의 지도자 수명이 정학처분을 받은것으로 시작된다. 학생들은 저분학생의 복학을 요구, 드디어 3일에는 문리학부 학생 6백명이 학생지회에서 유기천 서울대학총장의 사임을 요구, 오는 8일까지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전원이 퇴학원을 제출할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유총장은 신변의 위협을 느꼈는지, 부라닝 6연발 미스울 의 추대허가를 경찰에 신청하였다. 서울총장이라면, 일본으로 치면 동대 총장의 지위이다. 미스울을 허리에 차고다니는 대학총장이라는 전대미문의 이야기에는 한국의 세존의 비난도 만조, 여러가지의 반대가 있다.

(제 4편에 계속)



(제3편으로부터 계속)

정암신문은 5일의 사설에서 "총을 가지지 않으면, 학원의 질서를 유지할수없는 인물은 "발리
 고만 두는것이 크라" 라고 심한 비판을 하였다. 한국의 학생운동은 지난 1년간 업적이다. 작년
 8월25일, 박대통령이 " 학생은 학문을 하라, 정치에 관여하지말라, 시위만능의 폐풍은 뿌리채
 뽑아버린다" 라고 격렬한 언설을하고, 안일조약비준반대투쟁에서, 위조를 받은 학생은 8백
 수십명이나 되었다. 그후에도 학생운동에 대한 지안당국의 눈은 무서웠으나, 학생운동이 전혀
 일섯흔것은 아니다. 금년 6월, 서울대학에서는 학원제의 개혁을 시도, 13명이 처분을 받고
 있으며, 불온한 비라들 고내에서 뿌린 사건은 고내에서 몇번이나 일어나고있다. 10월에 들어,
 서울대학의 문리학과 법학부가 상성립수규란학생집회통 강행, 사립인 연세대에서도 학생집회가
 강행되고, 학교당국이 집회책임자의 학생을 정학처분하고, 또 서울대학의 유총장이 "정치에
 관여한 대학생은 정학처분한것이 무엇이 나"냐" 라고 하는 담화를 내냈다. 이대문에 학생의
 분노는 갈로, 지금 큰문제가 되어있는것이다. 지금, 이번의 사건에서 정학처분을 받고있는것은
 문리대, 법과대 에서 각각 3명, 그러나 8일까지에 학교측이 어디까지 나오느냐에 달려서 소동이
 확대할 우려도있다.

인 사 소 직

하와이 한인 사고제에서 널리 알려져있는 본향의 최백렬씨는 신체가 강건하고 무병하기로
 알려져있는데, 수주일전부터는 뒷 등이 가끔 불편하고 걸려서, 의사의 진단도 받고 병원을
 찾기 위해, 지난 주일에 세인트.프랜시스병원에 입원하여 전신을 검사 치료중이라고한다.
 최 백렬씨의 조속한 치료, 퇴원을 기원한다.

본향 가구상으로 유명한 김 창수씨와 동부인의 차자 리 차드. 김 (김 도길) 씨는 지난 6일
 (일요일)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중, 차를 운전하는 친구의 실수로 자동차 사고를 당하여
 권병원에 입원치료를중이라고 하는데, 부상은 입었으나, 중상을 면한것이 불행중 천만 다행이라고
 한다. 도길씨의 조속한 회복을 일반은 기도하고있다.

건오에 기보안바와있지, 와이아와의 최 선주씨의 부인 최완순여사는 세인트.프랜시스 병원에서
 입원, 수술후 정양중이라고하는데, 아직도 완시를 보지못하고 심음중이라고한다. 환자에 정양
 유시를 주기 위해, 일반 문방은 거절하고있다고한다. 조속한 시일에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일반
 름지를 비롯하여 모두가 기도드리고있다고한다.

모미. 미 여사 주하원의원 당선

이번 하와이주의 하원선거전에서 모미.미 여사는 작거한 남편 윌립.민 씨의 뒤를 이어, 주하원
 제 10구(오아후섬, 필.씨리 지방)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하여, 맹렬한 선거전을 전개하여오른중
 8일의 총선거에서 당당히 당선되었다. 주하원에서는 유일의 부인하원의원이다. 이 제10구는
 민주당의 우세한 지역으로 하원의석 네 자리를 민주당이 다 차지하였다. 모미.미 여사는 제3원
 로 당선되었다. 앞으로 고 윌립 씨의 남거는 일을 계속 추진할것이라고한다. 모미 여사의
 행운을 축하한다.

리순옥씨 모로가이 섬 재선

또 모로가이섬의 시장으로 지난 주입기를 완수해온 순옥. 리씨는 이번선거에 재선되며, 제
 3기득 시무하기로 되었다. 한인 이세로서 마우이 군청사전에 독송하여온 리 순옥씨는 "꾸준히
 또 충실히 일을 하여 모로가이 섬 주민의 신망을 독차지하고있다고하며, 우리 한인에게는
 자랑거리라하겠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회당의 윌러.릿치씨를 922 표대 880 표로 물리치고
 재선 된것이다. 순옥씨의 새로운 임기에 축복이 잇기를 바란다.



상업광고

조필리 꽃 전방 PHIL'S FLORIST SHOP

결혼식에 필요한 꽃다발 그리고 아름다운 화환,
장례식이나 병원심방, 손님 봉별, 영접에 필요한 화환, 테이, 꽃 바구니
미국에 보내시는 꽃은 항공수송을 위한 포장도 하며, 여러분의 편리를
위해 특별히 좋은 "서-비스" 를 해드립니다.

주소는 201 남.비니아드. 거리 (센트럴.인터미디엇.스쿨 마진 언의 4층
스켄트 건물의 1층에 있음)

201 So. Vineyard Street
Telephone 501-976

보-스윅 장의소 BORTHWICK MORTUARY, LTD.

1330 Maunakea Street
Telephone 513-566

본 장의소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특별히 동지회오상부원 께도 한
한인계에 가장 특별한 "서-비스" 를 하여왔으며, 또 한 앞으로도
그럴 터입니다. "서-비스" 라면 주야와 풍우를 가리지 않고, 또 한
원근을 관계치않고, 제반 수속을 다 해드립니다.

미스터 양 의 사례 전화는 94177

시티 뱅크 어브 호놀룰루 CITY BANK OF HONOLULU

여러분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에 "시티.뱅크" 에서는 한국은행과
계약을 맺고, 직접 한국으로 돈을 부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서울본점과
부산 지점, 그리고 여러 지점으로도 돈을 부칠수 있어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티.뱅크" 는 핀.스프링 파 리차드.스프링 모듬이에
최근대시 대 건물을 신축하고, 여러분의 각종은행사무와 손금의 편리를 도움과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60-811 이며, 문의하실 일이 있으시면, 오전참사
에게 연락하십시오. 전화번호는 963-111 입니다.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